



제2744호 2024년 12월 15일(다해)

(자)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발행인 김선태 주교 | 주소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편집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 대표전화 (063)230-1004 | 팩스 (063)230-1175

홈페이지 <http://catholic.or.kr> | E-mail catholic114@hanmail.net

교구장 사목교서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5,12)



만경성당(2저쿠)

사진 | 강우정 마리아(가톨릭사진가회)



① 박성문 신부(주임) ② 전광명(사목회장) ③ 문명선(사무장) 외 사목회원

입당송 _ 필리 4,4.5 참조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1독서 _ 스바 3,14-18 ㄱ

화답송 _ 이사 12,2-3.4ㄴ ㄷ 5-6(◎ 6)

◎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

○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

제2독서 _ 1필리 4,4-7

복음환호송 _ 이사 61,1 참조(루카 4,18 인용)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_ 루카 3,10-18

영성체송 _ 이사 35,4 참조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주보 <숨정>은 전주교구의 역사이고 소식이며 선교입니다. 성당에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것도 남에게 주어라.



서철승 가롤로 신부
(교구 사회사목국장)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 친구 이야기를 해봅니다.

어느 나라에 성질이 고약하고 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감옥에 가두어 버리거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왕의 행차를 만났습니다. 길 가던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수그리고 깊은 절을 올렸는데, 그 사람은 잠시 탄생각을 하다가 왕 앞에서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노발대발 분노하며 그 사람을 체포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아침에 궁궐로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왕 앞에 가는 게 너무 겁이 난 그는 따라가 줄 친구를 찾았습니다.

평소 본인이 첫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포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단칼에 거절하였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자신도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두 번째로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두 번째 친구도 왕이 무섭다고 말하면서, 왕 앞에까지는 갈 수 없고 왕이 보이지 않는 궁궐 대문까지만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에게 가서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그 포악한 왕 앞에 가서 너를 변호하고 지지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첫 번째 친구는 평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돈입니다. 돈은 관까지만 따라갑니다. 두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무덤까지만 따라가서 올려드립니다.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요? 자선, 선행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지지해 준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치고 난 후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가 바락바락 긁어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것이랍니다.



바오로딸콘텐츠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와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루카 12,33)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 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준다.(토빗 12,9)

자선은 튼튼한 방패와 단단한 창 이상으로, 너를 위해 원수와 맞서 싸워 주리라.(집회 29,13)

오늘은 자선 주일입니다.

복음에서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3,11).”라고 나와 있습니다. 옷 두 벌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량입니다. 한 벌은 입고, 동시에 다른 한 벌은 세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벌을 남에게 주라는 의미는, 나에게 꼭 필요한 거라 해도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과감하게 주라는 의미입니다.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나눔은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다 쓰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꼭 필요하다고 해도 남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진정한 자선의 정신입니다. 십자가 상 죽음에서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주신 예수님께 나눔 실천에 필요한 신앙적 용기를 달라고 청해봅시다. 아멘.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주님께 꾸어 드리는 이, 그분께서 그의 선행을 갚아 주신다.(잠언 19,17)



「찬미받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2015.

한 해 동안 성지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사랑의 기쁨」을 함께 읽으면서 저는 “확대 가정의 삶”이라는 말을 가장 눈여겨보았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위한 복음화’의 시간이 단순히 내 가정만을 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은 나를 시작으로 다른 이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점점 커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확대 가정의 삶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연재의 마지막 소개 문헌을 「찬미받으소서」로 준비했습니다.

교황님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의 집이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누이며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주는 아름다운 어머니와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1항). 그리고 이 누이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2항)라고 호소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하여 세상의 가장 아파하는 이들을 넘어,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환경 악화에 당면하였기에(3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또한 “세상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하느님과 우리 이웃과 함께 나누는 방법인 친교의 성사로 받아들이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9항). 환경을 위하여 우리의 시작점은 아무리 작은 피조물이라도 ‘형제’나 ‘누이’로 부르고(11항), 그들의 울부짖음을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의 시각으로 생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특별한 시각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단순히 환경오염이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기에 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전적 이익만을 얻으려고 할 때 그 누구도 생태계 보존에 참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36항).** 영성적이고 신앙적인 시각으로 이해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

고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과 모든 존재들을 우리의 이해를 위하여 망가뜨렸음을 반성합니다. 창조주와 인류와 모든 피조물의 조화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여기고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깨어졌습니다(66항).

따라서 문헌은 우리의 ‘생태적 회심’을 촉구합니다.

생태 위기는 깊은 내적 회개를 요청합니다(217항).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회개의 이 차원을 분명히 드러내어, 우리가 받은 은총의 힘과 빛이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맺는 관계에서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221항).

하느님께서 세상 모두를 창조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모두를 위한 구원의 눈으로 생태 문제를 이해하려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공동의 집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문헌은 단순히 환경오염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며 포기하고 단죄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랑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인류는 여전히 우리의 공동의 집을 건설하는 데에 협력할 능력이 있습니다(13항).

우리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세상 모두의 일치를 이루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 책을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 모여 함께 하느님께 기도를 드렸던 모습들처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 드립니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박찬희 다니엘 신부
(천호성지)



제40회 성서 주간 말씀 잔치



교구 사목국(국장=길성환 신부) 성서 사도직은 제 40회 성서 주간을 맞아 11월 28일(목) 평화의 전당에서 말씀 잔치를 열었다. 이날 최종훈 신부(광주대교구 목포가톨릭성지 담당)는 ‘성령의 이끄심 그 길을 가다.’를 주제로 3차례에 걸쳐 강의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펼친 선교 여정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사도직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신·구약

성경을 토대로 강의한 최 신부는 “사도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을 체험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감각을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강 후에는 교구장 김선태 주교 주례로 파견 미사를 봉헌하였다.

김 주교는 “오늘 말씀 잔치에서 하루를 말씀으로 채운 여러분의 모습이 환하다. 하느님의 말씀은 뜻한 바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다.”라며 “구세주 잉태를 순종으로 받아들인 성모 마리아처럼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인내로써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취재 : 신현숙, 사진 : 서정순(교구 기자단) |

세무사 유지상 사무소

국세청 30년 근무/유지상(안토니오)
억울한 세금 불복청구 전문
양도·상속·증여세 등 모든 세무업무
010-8764-5249전주세무서 바로 뒤편(서곡)

아름다운 김현숙안과

쌍꺼풀수술·상안검성형술·하안검성형술
성형안과 정회원
원장 김현숙 레지나
신시가지 국민은행 5층 063)225-7717

몽 헤 알(브런치카페)

커피, 맥주, 와인, 파스타, 피자, 리조토
황현(토마스) 진경민(아가타)
익산시 선화로1길 58-41(서부보훈지청 옆)
☎ 063)854-2488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으로 성지에서 쉽고 제주 여행
한라산포함 : 1.11~13 / 1.16~18 / 1.20~22
1.24~26 / 2.1~3 / 2.7~9 / 2.15~17(제주T/S)
02-773-1455 / 064-796-4182

온누리 바른척추&통증관리

목·어깨·팔·허리·다리
척추 골반 통증 및 체형 관리
최민준 시몬 010-3684-5544
효자동 신기독병원 맞은편

전주항외과(구, 항병원)

치질·하지정맥류·탈장
위대장내시경·국가건강검진
원장: 전문의 전관희(루카), 이관재, 황정환
228-6002 삼천동 세창자임APT 맞은편

백마 익스프레스

포장이사/일반이사/반포장/이사전문업체
이정환(마르코) 인정미(프란치스카)
063)253-2452, 244-2408~9
010-5678-2486

전주 미르 치과 병원

진료문의 063)224-7700
이선하 크리스티나 정화웅 프란치스코
허선 세라피나 정자실 소화데레사 김동욱 요셉
중화산동 은하아파트 사거리 (백제대로218)

성바오로복지병원

양·한방 협진, 수술 후 회복기, 암 환자
만성질환, 기타 요양이 필요한 질환(면회 가능)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운영
063)249-3300~3302

전일관광 메주고리에 성지순례

그리스.알바니아.몬테네그로.크로아티아
보스니아.이탈리아(매일 미사 드립니다.)
2025년 2월 16일~27일(12일간)
전일관광 조선 안토니오 063-288-6666

제주.전국167곳 일본베트남성지순례

제주-38만원, 전국 2박3일-36만원
베트남.마카오 성지순례 2박3일-120만원
일본 북해도.나가사키.아키타 3박4일-120만원
오완수(마르코) 010-4239-1929 마르코투어

양빛나 유외과

유방 갑상선 전문의 · 여성 전문의
원장 양빛나(리나), 이주환(요한)
효자동 홈플러스 맞은편 하나은행 4층
063)228-9336



서석희 신부 모친 故 송해금 마르타 자매 장례미사



서석희 신부(창인동성당 주임)의 모친 故 송해금(마르타, 향년 88세) 자매의 장례미사가 11월 26일(화) 오전 10시 월명동성당에서 교구장 김선태 주교 주례로 봉헌되었다.

김 주교는 강론에서 “수도생활을 꿈꾸었던 고인은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한 평생을 사셨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골로 3,1)’라는 말씀을 삶의 모토로 삼으셨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그리고 “서 신부가 ‘새 벽기도 드리는 어머니’를 기억하듯 일생을 하느님과 일치하며 내적으로 기쁘고 평화롭게 사신 고인처럼 우리도 지나가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마음을 모으자.”라며 미사에 함께한 이들을 위로했다.

서석희 신부는 고별사에서 “겸손하고 평화롭게 주님을 찬미하셨던 어머니의 삶을 본받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며 장례미사에 참석한 사제, 수도자, 신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인의 유해는 천호성지 부활성당 봉안경당에 안치됐다.

| 취재 : 오안라(교구 기자단), 사진 : 길용운(교구 영상기자단) |

유진영 신부 22주기 추모 찬양미사

故 유진영(바오로) 신부 22주기 추모 찬양미사가 12월 6일(금) 오후 7시 30분 우전성당에서 공현성 신부(권상연 주임)의 주례와 교구 사제중창단 데오 그라시아스(단장=백재욱 신부)의 찬양으로 봉헌되었다.

유 신부는 1998년 2월에 서품을 받고 송천동과 서신동 보좌를 거쳐 군중사제로 사목 할 당시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중 2002년 12월 7일에 선종했다.

황의현 신부(서학동 주임)는 강론에서 유 신부를 롤 모델로 삼으며 진심으로 선배 신부를 따랐고 사제성소의 씨앗을 키웠다고 말했다.



성당을 가득 채운 신자들은 음악회의 분위기에서 앙코르 곡을 신청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달래 가며 추모 찬양미사에 함께 했다.

| 한창임(교구 기자단) |

- **신학생 방학인사 및 동계 연수**
12월 16일(월) 오전 9시 덕유산
- **해성학원 이사회**
12월 19일(목) 오후 2시 30분 교구청
- **사목평의회**
12월 20일(금) 오후 4시 30분 교구청
- **사목방문**
12월 22일(주일) 오전 10시 30분 금마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합니다.

천주교 전주교구 교정사목에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자 가정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미사, 상담, 그 밖의 지원 등

천주교 전주교구 교정사목
230-1053

조속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수호를 위한

시국기도회

일시: 12월 16일(월) 19:00부터 매주 월요일
(현재 판결 시까지 또는 자진 사퇴 시까지)

장소: 중앙 주교좌성당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구 행사

- **12월 16일(월)**
-교정사목 전주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문정)
-사랑의 다리 6지구 후원회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영등소리)
-치유회복 미사
(오전 11시 자비의 성전)
- **12월 17일(화)**
-경찰사목 베드로회(부안해양경찰서) 미사
(오후 6시 10분 전북경찰청)
-시청 로사리오회 미사
(오후 6시 40분 전주시청)
- **12월 18일(수)**
-건축자문위원회
(오후 2시 30분 교구청)
- **12월 21일(토)**
-순교자현양미사와 워크숍
(오후 2시 교구청)
-이주사목 후원.봉사자 월례미사
(오전 10시 30분 우림)

교구 내 알림

- **성모양로원 입소 어르신 모집**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문의 : 063)453-8400
홈페이지 : www.smo8400.net
-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디지털성범죄
스토킹.교제폭력 긴급구조.보호.상담
365일 24시간/문의 : 063-1366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월례미사**
12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복지관
대상 : 자원봉사자. 후원자
문의 : 063-466-7981
- **마리아사제운동 다락방기도 미사**
12월 21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 유향검관 4층 대강당
문의 : 010-9853-9080
- **전주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55036)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이메일 : jjcatholic@hanmail.net

교구 밖 알림

- **돈보스코여자재속회(VDB) 성소모임**
대상 : 40세 미만 미혼 여성으로
세상 안에서 축성생활을 원하시는 분
문의 : 0507-1306-1505/카카오톡 채널
- **예수회센터 거울방학 특강**
구약의 하느님들을 알아보자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 번째 길
명화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 **청주 초정성령회관 송년대피정**
12월 27일(금) 20시~28일(토) 14시
강사 : 김완식, Fr.양창우, Fr.박효철
참가비 : 2만원(청소년 무료)
장소 : 초정성령회관/043)213-9103
셔틀버스 : 조치원역 18:20 출발
청주터미널 다이소 건너편 18:40 출발
- **천주의성요한 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12월 21일(토) 오후 2시 서울 개화동
대상 : 보건·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문의 : 010-3800-1579

교구청 가정사목국 직원 모집

1. 자격조건
가.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천주교 신자
나. 회계 업무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다. 주말 근무 가능자/ 라.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마. 가정, 상담 관련 전공자 우대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자격증사본, 최종학력증명서
(<http://www.jcatholic.or.kr> 에 게시된 양식 사용)
3. 제출기한 : 2024. 12. 16.(월) 17:00까지
4. 제출방법 : 이메일: jjmst@j1004.net
우편/인편 :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무처 ☎230-1068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 참고 : 제출된 서류는 폐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구청 전산 직원 모집

1. 자격조건
가.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된 천주교 신자
나. 전산전공자(대졸 이상)
다. 선발 시 우대 사항(SQL C# 가능자, 프로그램 개발
경험자, 전산 업무 경력자, 만 50세 미만인 자)
2.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증사본,
(<http://www.jcatholic.or.kr> 에 게시된 양식 사용)
3. 제출기한 : 2024. 12. 16.(월) 17:00까지
4. 제출방법 : 이메일: jjmst@j1004.net
우편/인편 : 천주교 전주교구청 사무처 ☎230-1068
5. 선발방법 : 서류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

* 참고 : 제출된 서류는 폐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주가톨릭신학원 신규 과정 개설

가톨릭교회교리서 제3편-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연수과를 졸업한 학생을 위한 강좌 안내 (1년과정)

전주가톨릭신학원 신앙연수과를 졸업한
학생을 위한 <가톨릭교회교리서 제3편>의 과
정을 2025년도 1,2학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신학원 졸업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학원 입학원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은
제외됩니다.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천주교 사제 1448 시국선언문 中>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로마 3,23)



조속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수호를 위한

시국기도회

일시 : 12월 16일(월) 19:00 부터 매주 월요일
(탄핵 후 헌재 판결 시까지 또는 사퇴 시까지)

장소 : 중앙 주교좌성당

첫 주례 :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눈먼 이가 눈먼 이를 인도하면 둘 다 구렁이에 빠질 것이니
국민 여러분은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죄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매섭게 꾸짖어, 사람의 본분을 지키게 해야합니다.
하느님 나라와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합니다.